

船舶史연구의 독보적 경지 개척

철순 고령에 「우리 배의 歷史」 펴낸 金在瑾박사

한국船舶史연구의 독보적 경지를 일궈온 金在瑾박사 (69·서울대 명예교수·학술원 부회장)가 최근 자신이 간간 발표했던 선박사 관련 논저들을 한권의 책 속에 통사적으로 체계화한 「우리 배의 歷史」(서울대 출판부)를 상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책은 특히, 학자로서 매너리즘에 빠져들기 십상인 나이에 펴낸 노익장의 역저라는 점도 이채롭거니와, 그것이 우리 학계에선 보기 드문 특수사 분야의 당당한 노작이라는 데서 더 큰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 모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1편 「韓船구조」에서는 한국선박 고유의 구조방식과 연혁을, 제2편 「각시대의 선박」에서는 삼국 이래 조선말까지의 주요선박의 종류와 기능 등을 다루고 있는데, 쉽게 풀이한 문장으로 선박사 특유의 까다로운 전문성을 일종의 「교양」으로 轉化시킨 저자의 노력 또한 돋보인다.

「平底船」이 우리 배의 기본골격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우리 배의 역사를 꼭 써야겠다고 벌려온 내 나름의 오랜 약속이 이제야 지켜진 셈입니다. 정년퇴임 후 4년만의 첫 결실이지요. 흔히 한국배는 하등 보잘것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역사의 유구함과 탁월성이 다른 나라에 비길 바가 아닙니다. 가령, 장보고나 이순신은 평지돌출적인 특별한 개인들이 아니라, 우리 해양사와 선박사의 연면한 전통 속에서 자연스레 솟아 오른 봉우리들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박사는 우리 배의 역사를

한민족의 문화적 독창성이 가장 잘 발휘된 본보기로 본다. 그에 의하면, 한국의 전통적 재래선은 船種과 시대를 막론하고 이른바 「平底船」의 구조적 특성을 공유하면서 발달해왔다는 것. 고려초기의 兵船인 樓船과 漕運船인 哨馬船을 비롯, 조선시대의 전투선들인 猛船, 板屋船, 거북선, 海鶴船, 그리고 근대의 나룻배 등이 모두 동일한 건조방식의 다양한 변주라는 것인데, 그런 우리 배의 평저선적 특징을 김박사는 「韓船」의 개념 속에 아우른다.

“우리 배의 역사는 곧 한선의 역사라 할 수 있죠. 이는 단순한 동어반복이 아니라, 중국의 정크선이나 일본의 和船과 구별되는 우리 배만의 독특한 正體性이 한선으로 구현됐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 가장 시원적인 모습이 1975년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안압지선」과 1984년 완도에서 발굴된 「완도선」에 나타나죠.”

즉, 완도선 등에서 시원을 보이는 두껍고 평탄한 底板, 서로 겹쳐서 붙여 올린 外板, 그리고 좌우현의 외판을 연결하는 加龍木의 구조가 후대까지 전승되고 있는 한선의 기본골격이라는 것. 「우리 배의 역사」는 그 평저선적 기본골격이 선박사의 문맥 속에서 어떻게 변용되고 발전해왔는가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책인데, 김박사 스스로는 “한국배의 체질이 비교적 직선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 역사를 체계화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심상히 말한다.

그러나, 「朝鮮王朝軍船研究」(1976), 「거북선의 神話」(1978), 「배의 歷史」(1980), 「韓國

한국선박사 연구의 처녀지를

개간해온 김재근박사가

그동안의 논저들을 통사적으로 집성한

「우리 배의 역사」를 최근 펴냈다.

우리 배 특유의 「平底船」적 기본골격이

선박사의 문맥 속에서 어떻게

발전돼 왔는가를 처음으로 밝힌

이 책을 통해 김박사는 한민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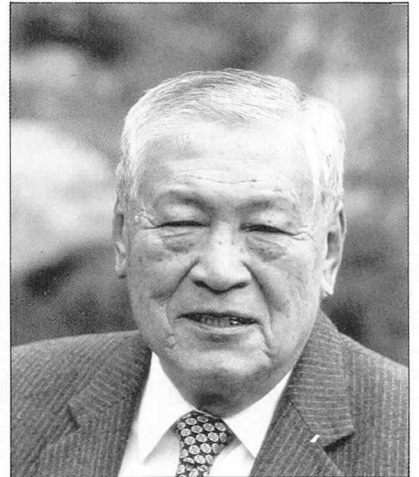
해양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알기 쉽게 일깨운다.

船舶史研究」(1984) 등에 이어 이번의 「우리 배의 역사」로 저간의 연찬을 집성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언덕으로 비빌 만한 先學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三國史記」「高麗史」「朝鮮王朝實錄」「備邊司謄錄」등의 사료 속에 낙수처럼 산재한 선박사 관련기사를 일일이 취합하여 체계를 세우는 작업은 여간한 수고를 요하는 일이 아니다. 게다가, 배의 구조나 건조방식 등은 물론이고, 船制史나 水軍제도 등에 대한 이해 또한 필수적이어서 선박사 연구는 조선 공학자와 역사학자의 능력을 아울러 요구한다.

거북선을 댄스홀로 꾸미자는 제의 받기도

김박사가 원래 전공인 선박설계를 체져 두고 선박사 연구에 본격적인 관심을 품은 것은



그의 아호 '牛峯'처럼, 소갈이 바위같이 한국선박사 연구 한 길을 걸어온 김재근박사.

대략 60년대 말부터. 당시만 해도 거북선이 철갑선이니 잠수함이니 해서 논란이 분분했기 때문에 전공학자로서 사실을 규명할 의무감을 느껴서였다고 전하는데, 그 의무감이 '글'로 표현된 최초의 것이 1974년 「학술원논문집」에 발표한 「龜船의 조선학적 고찰」이다.

“당시 「학술원논문집」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공학분야 논문게재를 주선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마감이 다돼 백방으로 알아봐도 도무지 공학논문은 단 한편이 제출되지 않아요. 그래 하는 수 없이 나라도 무엇이든 써내리자는 공여지책으로, 1969년 거북선 복원 작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밑천 삼아 「구선의 조선학적 고찰」을 발표하게 됐었죠. 거북선은 판옥선의 한 변형으로 철갑선이라기 보다는 장갑선일 가능성이 높고, 충무공의 독자적

이제는 머리숙여 조용히 기도할 때./

조용히 부르며 가슴에 와닿는 당신

이해인 外 저음

처음으로 「기도」를 주제로 한 詩만을 모아 꾸몄다. 국내 유명시인에서부터 D. 맥아더의 「아버지의 기도」에 까지 가장 간절하고 진한 감동을 주는 작품만을 엄정 수록.

이대출판사 ☎ 730-6166
서울·종로구 경운동 96-18

이제는 모두 모여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사랑하여요

박인환 外, 사랑詩

감미로운 사랑과 가슴아픈 사랑. 깊고 그윽한 사랑에 까지의 온갖 사랑을 주제로 꾸며놓은 사랑 투성이의 사랑스런 책.

가슴으로 읽고 영혼으로 느끼세요.
신국판/188면/값 2,500원

이대출판사 ☎ 730-6166
서울·종로구 경운동 96-18

전국의 베스트셀러

(스포츠서울발표 1월 16일 ~ 31일)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칼릴 지브란과 메리 헤스켈의 영혼의 속삭임

詩人 칼릴 지브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심오한 명상의 세계를 열어주는 살아 있는 언어의 철학자. 지브란과의 사랑을 통해 영혼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메리 헤스켈. 지적인 두 연인의 대화는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전해준다.

정은하 역음 / B6신판 / 120면 / 값 2,000원

도서출판 **진선** 702-2921, 717-2131

이해인 수녀님의 시집이후 또한번 폭발적 인기! 또한 메스컴이 격찬한 비구니 스님의 이색시집!

젊은 여승의 수행시집

품인줄 알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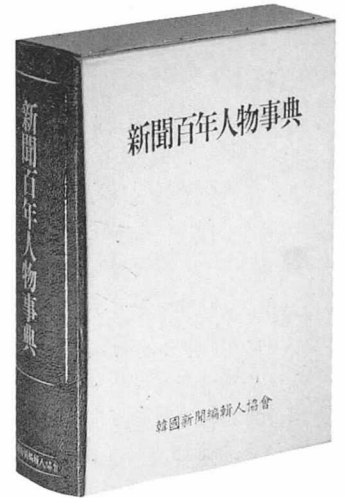
석승암 저음/값 2000원

꿈과 행복, 사랑과 미움, 그리고 만남과 이별. 외로운 수행을 통해 얻은 그 진실한 의미.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숙연케 하고 때로는 우리의 허전한 가슴을 봄비처럼 촉촉히 적셔주는 이 애절한 비구니의 노래.

동국출판사 ☎ 738-4665

인물 중심으로 본 言論100年史

編協, 언론인 8천여명 수록한 「新聞百年人物事典」퍼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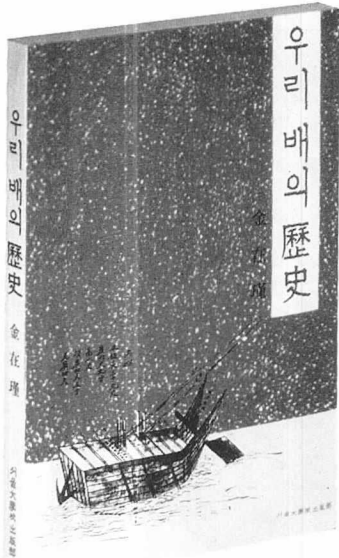


晉錫교수(외대 신방과)는 말한다.

이 사전에는 ① 한말~해방 이전까지의 언론계 종사자 전원 ② 해방 이후 4.19까지는 편집국 계통 전원, 편집국 이외의 종사자는 차장급 이상 ③ 4.19 이후 현재까지는 각 부서의 차장급 이상 ④ 방송사·언론단체 종사자나 잡지인·출판인·광고인 ⑤ 언론학 교수 등이 모두 망라돼 있다. 이밖에 부록으로 구한말~일제시대와 해방이후 현재까지의 폐간된 신문·통신사, 그리고 현존 일간지의 역대 임원·간부 명단을 덧붙였다. <신국판 1,170면/50,000원>

한말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론계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 8,241명을 수록한 「新聞百年人物事典」이 한국신문편집인협회(회장 권오琦)에 의해 간행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漢城旬報」(1883)에서부터 현재까지 언론계에 종사했던 인물들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 정리한 이 책은 단순한 인명사전을 넘어 한국언론 100년의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개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우리 근·현대사 연구에 또하나의 귀중한 기초자료를 보였다.

이 책에 실린 인물의 범주는 아주 광범하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신문종사자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근대적인 신문이 처음 발간된 한말 개화기에서 일제시대까지의 언론계는 근세 한국인물들의 집결처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저명인사를 폭넓게 망라하고 있다. 우국지사·독립운동가·문인·학자들이 대부분 민족언론에 참여했다. 가령 徐載弼·張志淵·梁起鐸 등이 언론을 통해 구국운동을 벌였고, 李人植·崔南善·李光洙·朱耀翰·廉想涉·玄鑣健 등 문인들도 대부분 언론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이밖에도 특히 60년대 이후 정계·문단·교육계 등에서 활동한 인물 중 상당수도 언론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책은 “언론만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사회 각 분야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편집실무 책임을 맡았던 鄭



을 하더군요.”

또, 거북선이 잠수함을 굳게 믿는 자칭 발명왕도 만난 적이 있는데, 그의 제안이란 것이 거북선을 만들어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이북의 아무개를 생포해보면 남북통일이 저절로 될테니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다고.

“선박사 연구 외길엔 끝이 없다”

「우리 배의 역사」로 한국선박사의 윤곽을 그려 보인 김박사는 요즘 7순을 앞둔 나이가 무색한 정열로 또다른 후속작업에 매달려 있다. 그가 다른 어떤 나라의 것보다도 우수하다고 확신하는 우리의 水軍제도와 함포 연구를 비롯하여, 「우리 배의 역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일정시대의 한선 연구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특히, 일정시대의 한선 연구를 우선적으로 착수할 작정이라는 데, 이를 위해 경향 각지의 나이 든 ‘배목수’들을 만나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바쁘다. 학술원 일과 가끔씩 들어오는 주례요청에 응하는 일 이외엔 외출을 삼가며, 40년동안 불박이로 살아온 서울 동승동의 마당 넓은 古屋에 동지를 틀고 앉아 요즘은 오롯이 이 일에만 매달려 있다.

그의 아호 ‘牛岩’처럼, 소같이 바위같이 묵묵하게 걸어온 김박사의 한국선박사 연구 한 길은 끝이 없다.

—강철주 기자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유구한 한국선박사의 산물이라는 점 등을 밝힌 것이 이 논문의 골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한 첫 논문이 사계의 ‘과분한 호평’을 받고, 그에 힘입어 이후 김박사는 20여편에 이르는 논문으로 한국선박사 연구의 미답지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李丙燾, 千寬宇, 崔永禧, 韓祐舫씨 등 역사학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 그러나 때로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기도 했다.

“제가 무슨 ‘거북선전문가’처럼 알려지니까 엉뚱한 제의들이 들어옵니다. 평소부터 잘 알던 사업가 한 사람은, 거북선을 실물 크기로 재현해 한강에 띄어놓고 그 내부를 바와 덴스홀로 꾸미면 일확천금할 수 있다는 제안

불꽃춤

(해직여기자가 쓴 통한의 장편소설)

안혜성 著

김윤식 編

6.25로부터 유신독재, 언론대학살, 광주 민주화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격동기 속을 맨몸으로 헤쳐나온 해직 여기자 안혜성의 치열한 영혼의 모험, 내적 성장의 연대기.

신국판/326면/값 3,800원

도서출판 **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5-11 ☎ 587-2051~4

解禁詩人 99選

너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접할 수 없었던 월북·재북시인 99인의 다양한 시적 운용 방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집. 임화로부터 혁명적 로만티시즘의 설정식 시에 이르기까지 우리 해방 공간의 정신史.

B·6판/238면/값 2,500원

도서출판 **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5-11 ☎ 587-2051~4

전국의 베스트셀러

(스프링서울대표 1월 16~31일)

꼬마철학자 1·2

알퐁스도데 지음
이재형·김종태 옮김

청소년에게는 순수함을 가르쳐주고 어른에게는 동심을 일깨워주는 책. 어린시절의 추억을 서정적인 언어와 환상적인 분위기로 그려냈다.

A5신/1권 3500원(341면)
2권 2500원(219면)

도서출판 **산하** ☎ 392-7641

마포구 아현 2동 339-3 화광BD 202호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것은

(14판) II가 나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라한다

얼굴없는 시인
김기린

값 : 2,000원

발행 즉시
3판이
판매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삼한출판** 470-8112~3